



우리 지역의 밀린 숙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김재원

[만52세]

무너진 보수정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2기호



**김재원은 동료 국회의원들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1등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김재원 후보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시절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내부대표단 의원들과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 1974년 하령국민학교 4학년 재학 시절

우리가 자라던 어린 시절은 왜 그렇게 가난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성군 안평면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가뭄이 들 때면 내리 조밥만 먹었습니다.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학교를 빼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며
한 식구 같은 소까지 팔아가며 우리 4남매를 공부시켰고,
덕분에 저는 도회지로 나가 서울대 법대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양과에 합격해
경북도청, 국무총리실,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행정부 공무원과 검사로 12년간 일하며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았습니다.

2004년 4월, 만39세의 나이에 저는 고향으로 돌아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패기 하나로
고향을 위해 신명나게 일했습니다.

2007년 8월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저는 박근혜의 편에 섰습니다.
박근혜의 대변인으로 몸 바쳐 뛰었지만 지고 말았습니다.
투표에서 이기고 여론조사에서 졌다는 기막힌 패배는
어이없는 친박핵심에 대한 공천학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학살당한 모든 친박들이
공천불복을 선언하고 선거에 뛰어들 때
저는 공천 결과에 승복하고 책임을 홀로 떠 안는 심정으로
중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드넓은 중국대륙에서 뜻을 세운 저는
2012년 4월 제19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돌아와
정부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 등 청와대와 국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며
국정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지난 해 상주시와 군위, 의성, 청송군 선거구가 합쳐지면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가 많이 부족하여 새누리당 경선에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 군 복무 시절 200km 행군 중에



▲ 제17대 국회 초선의원 시절



▲ 중국 북경 유학 시절



대통령이 탄핵되고 수사에 이르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통령을 모셨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논리에 너무 휘둘린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시각도 감출 수 없습니다.

저 김재원은 이번 재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보수정치의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보수정치의 중심이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인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대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밀려있습니다.
경북신도청, 혁신도시, 경마공원 유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됩니다.

저 김재원은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의 밀린 숙제를 모두 해결하려 합니다.

저는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에 모두 쏟아 붓겠습니다.

[할 말 하는 김재원! 책임질 줄 아는 김재원!]



국민일보

김종인 前 대표 "후임 총리는
헐헐레한 사람이 하게 될 것"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대통령이 살아있는데
총리가 뭘 할 수 있나"



다들 어만주단 김종인 전 비상대책
위원의 대표는 "후임 총리는 헐헐
레한 사람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
했다.

김 전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
들과 만나 "거국론이란 말도 안 되
는 얘기다. 대통령이 두 눈 시퍼렇
게 뜨고 살아있는데 총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총리로 추천한
데 대해 "솔직히는 걱정과 상상을
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게 할 리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어떤 제안이 있었으면 거국론(거
국론)은 새누리당이 예기하고 안 꺼냈을
거다. 새누리당의 입서비스"라고
평가했다.

김 전 대표는 또 "어떤 대선 주자
라는 사람들이 한 지 앞도 못 보고
거국론 소리들었다. 상대가 어떻
게 나올지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
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니 사드 배
치 때와 똑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 대통령 거취에 대해서도 "단박

김종인 기자 eyes@kmb.co.kr

김 수석은 이 자리에서 비서진 총사퇴
를 제안했다고 한다. 사태가 이 지경
까지 이른 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
하지 못한 비서들의 책임이 큰 만큼
사태 수습을 위해 물러나자는 취지
였다는 것이다.

(김종인 前대표는) 김재원 전 정부
수석이 직을 걸고 설득해 동반
사퇴한 것이라고 전했다.

朝鮮日報

1900년 3월 1일 창간 194 002 04 014 494 950 900 907

chosun.com

944 4300 844 278 89 2016년 1월 27일 목요일

비서진 사퇴·대통령 사과문·개헌... 사사건건 충돌한 김재원·우병우

김 정무수석 vs 우 민정수석



석과 관련한 비위 의혹
이 불거진 이후 그의 거
취 문제를 놓고 대립 관
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
려졌다. 특히 김 수석은

새누리당이 26일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박근혜 대통령에
게 요구하기로 뜻을 모은 최고위원 회의에
는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그
런데 김 수석도 여당 지도부가 요구하는 우
병우(사진) 민정수석 사퇴가 불가피하다
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청와대 안에서 우 수석과 김 수석이 대립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25일 이원종 비
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비
서진 총사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
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이 자리에서 비서
진 총사퇴를 제안했다고 한다. 사태가 이지
경까지 이른 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비서들의 책임이 큰 만큼 사태 수습을
위해 물러나자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그리
나 일부 수석이 "대통령만 남겨두고 무책임
하게 사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면
서 김 수석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우 수석은 '사퇴보단 사태 수습이 우
선'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열린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며칠 앞두
고 "나와 동반 퇴진하는 게 어때냐"는 제안
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론 관계자는
"우 수석이 국감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자
김 수석이 동반 퇴진을 제안했지만 우 수석
은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 24일 있었던 박 대통령의 개헌(改

청와대 국정감사 며칠 앞두고

특히 김 수석은 지난 21일 열린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며칠
앞두고 "나와 동반 퇴진하는 게 어때냐"
는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제안은 김 수석이 주도했는데, 우 수석
은 개헌 제안 방침이 확정된 다음에야 이

상주의 밀린 숙제! 김재원이 다 하겠습니다.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과 국가 사업을 유치하려면
힘 있고 능력있는 국회의원이
뒷받침해야만 합니다.



기호 **2** 힘있고 역량있는
김재원

상주약속

- 상주를 지나는 남북 고속철도화사업을 서두르고 상주역을 새로 짓겠습니다.
- 청리공단에 방치된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을 세계적인 타이타늄 소재 산업기지로 만들겠습니다.
- 상주IC-남상주IC간 우회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겠습니다.
- 경북대 상주캠퍼스에 종축검정소, 실습장, 교육지원센터 등 국가축산 산업복합단지(국가축산클러스터)를 유치하겠습니다.
- 남산근린공원내 헬스, 수영, 배드민턴 등의 체육시설을 갖춘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 낙동강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경북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군위약속

- 상주-군위-영천간 고속도로와 소보 인터체인지 건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팔공산터널(부계-동명)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 군위C-구미간 국도67호선과 고로-우보간 국도28호선 확포장 공사를 서둘러 시작하겠습니다.
- 중앙선 고속철도화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군위역을 지나는 고속열차의 횡수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 군위 통합취·정수장을 조기에 완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의흥, 산성, 우보면에 이어 부계, 효령 면소재지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흥시장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의성약속

- 중앙선 고속철도화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의성역을 지나는 고속열차의 횡수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 최신식 의성역을 새로 짓고 역앞에 대규모 공원형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 국도28호선 안계-다인구간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 군위-의성간 국도28호선 도로 직선화 공사를 서둘러 시작하겠습니다.
- 의성공공도서관, 의성경찰서, 의성군민회관을 새로 짓겠습니다.
- 첨단 진료시설을 갖춘 대규모 보건소를 새로 짓겠습니다.
- 의성전통시장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일 잘하는
3선 의원이
꼭 필요합니다.**

저 김재원이 남다른
정치력으로 더 많은
국책사업과 국가예산을
확보 하겠습니다.



검증된 김재원이 더 큰 발전을 약속합니다.

우리 고장의 과거와
현재 잘 아는 사람만이
지역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송약속

- 삼자헌터널(현동-부남)공사를 금년 상반기에 시작하고 매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경북북부교도소 지역주민 특별채용을 다시 실시하고 교도소 시설(교정연수원, 남녀 교도소)을 추가로 유치하겠습니다.
- 성덕댐의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덕광역상수도 취원으로 배송해 안덕, 현동, 현서면에 공급하겠습니다.
- 청송읍 LPG배관망 구축사업의 국비를 다시 확보해 서둘러 시작하겠습니다.
- 안동-영덕간(국도34호선), 포항-안동간(국도35호선) 확포장 공사를 서둘러 시작하겠습니다.
- 청송우회도로(국도31호선)를 책임지고 완공하겠습니다.
- 고속도로 청송IC-양지교차로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 청송읍과 진보면의 하수처리장 시설을 대폭 늘리고 처리구역을 확대하겠습니다.

공통약속

- **눈먼 돈으로 전략한 농업보조금을 개혁하겠습니다.**
 - 몇 사람은 수 억원의 농업보조금을 받아가고 꼭 받아야할 분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보조금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보조금 지급 전 심사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지급 후 감시 감독을 강화해 꼭 필요한 농업인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하겠습니다.
- **농촌지역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 농촌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지만 여러 사정으로 등기를 이전 못한 토지가 많습니다. 복잡한 소송대신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이전하실 수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행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인상, 경로당 운영비 및 지원 확대, 참전유공자 수당 등을 인상해 어르신들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을
물려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경력

- 육군소위 전역
- 사법 · 행정고시 양과 합격
- (전)국무총리실, 경상북도 사무관
- (전)서울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전)제17,19대 국회의원
- (전)한나라당 기획위원장
- (전)박근혜 대통령경선선거대책본부 대변인
- (전)중국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연구학자
- (전)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 (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 (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전)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
- (전)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2 자유한국당 김재원

선거사무소 : 경북 상주시 삼백로 135(서문동) 2층
전화 : 054-534-2017 팩스 : 054-534-9020

